

# 한국의 농촌생활개선 사업

##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 목 차

- 1. 머리 말
- 2. 생활개선 사업의 발전 과정
  - 가. 1957-1961년의 생활개선 사업
  - 나. 1962-1970년의 생활개선 사업
  - 다. 1971-1979년의 생활개선 사업
- 3. '80년대 생활개선 사업
  - 가. 생활개선 사업추진 체계
  - 나. 지도인력
  - 다. 농촌생활개선 사업 목표
  - 라. 중점지도 방향
  - 마. 분야별 지도과제
  - 바. 지도방법
  - 사. 지도실적
- 4.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 사업
  - 가. 농업과 농촌생활 여건의 변화와 전망
  - 나. 농촌생활개선 사업 방향
  - 다. 지도과제의 설정
- 5. 맺 는 말

### 1. 머리 말

우리나라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1957년 농사교도법의 공포로 1958년에는 농사원 교도국에 농촌가정과가 창설되었고 각도 농사원에 2명, 73개소의 시군 농사교도소에 91명의 가정교도원이 배치되어 시작되었다.

농사교도법 제1조는, “농사개량 발달을 위한 필요한 연구시설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하므로서 농산물을 증산하고 생활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 아래 시작된 교도사업은 그후 시대적 배경과 생활개선 사업의 변화과정을 거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경제는 선진화를 향해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국제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사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과거의 생활개선 사업의 발전 과정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2000년대를 향한 생활개선 사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생활개선 사업의 발전 과정

#### 가. 1957-1961년의 생활개선 사업

이 시기는 6.25 동란후라서 사회 및 경제가 불안정 했고,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으며 잠재 실업자가 많아 사회가 혼란하였다. 따라서 이 때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농촌과 도시 모두 노력하는 시기였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본위의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농촌여성들은 지나치게 가사일에 시달려 왔다.

1958년 2월에는 생활개선 전문기술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도 농사원 및 시·군 농사교도소에 배치할 가정교도원 91명에 대한 채용시험을 각도의 농사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을 담당한 “가정교도원은 농촌의 의식주생활 및 보건위생등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촌주부들의 지도를 임무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가정교도원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고충은 농촌지도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자원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제한된 인원으로 수많은 생활개선구락부를 지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원지도자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였다.

그 밖의 애로사항으로는 구락부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인 뒷받침의 부족, 가정교도원의 수가 나

무 적은 것, 농민의 보수적 생활태도,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 생활개선 문제에 관한 남성의 이해와 협조부족, 지방 관련기관의 협조 미흡 등이었다.

생활개선 구락부는 생활개선 활동을 위한 농촌 부녀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단체이다. 처음에는 전국에 80여개 구락부가 조직되었으나 1958년말에는 418개 구락부로 증가하였으며, 1960년까지 구락부수는 매년 400-500개씩 증가하였고, 부원수도 매년 4천-5천명씩 늘어났다.

생활개선 구락부에서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과제를 이수하였다. 초창기에 다루어 온 주요과제의 내용을 보면 실물전시를 통한 간이작업복 만들기, 영양학적으로 균형식 장려, 우물과 변소 및 부엌의 개량, 표준주택의 설계전시, 여자 4-H부원의 가사과제 지도, 생활개선을 위한 부녀구락부(생활개선 구락부) 육성지도 등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개량메주 만들기, 아궁이 개량, 밥상덮개 만들기 등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1961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시흥군 자경리에서 농촌생활개선 실적 현지 발표회가 농사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는 현지의 생활개선 사례를 인근 농민과 각계 인사에게 전시하므로써, 생활개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나. 1962-1970년의 생활개선 사업

1962년 혁명정부의 과감한 중농정책추진에 따라 농업부분 투자도 높아졌고 농촌지도 체계도 62년 4월에 농촌진흥청이 발족되면서 농촌진흥청 지도국에 농촌가정과를 생활개선과로 개칭하게 되었다.

농사원 개원후 수년동안 생활개선 사업의 모색과 준비 기간이었다면 6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부터는, 생활개선 전시농가 3,368호를 설치 지도하여, 사업의 대폭 확장과 아울러 1964년에는 141명의 생활지도사를 증원하여 비로소 시군당 1명씩 배치하게 되었다.

#### ○ 중점지도과제

1962년부터의 생활개선 사업은 더욱 광범위한 과제를 가지고 기초적인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식품자원의 최대활용과 영양개선, 연료 절약을 위한 온돌개량, 완전한 육아부업기술 훈련등과 부녀자들의 집단학습 활동을 지원하였다.

식생활개선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되는 식량의 소비절약과 균형식 섭취를 목표로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의 증산과 영양손실이 없는 식생활에 대한 지식, 가공조리 방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였으며, 미곡의 소비절약을 위한 대용식 및 혼식 보급을 위한 녹말제조기 활용과 조리법을 지도하였다. 1965년의 압맥기의 활용법과 공한지의 생산적 이용법 지도, 1967년의 고구마 전분, 전분박 제조, 고구마의 주식·부식 및 간식 제조법 지도, 1968년의 식생활개선 전시농가 설치, 1970년의 혼분식 요리법 지도, 1971년의 공동취사장 설치 등이 생활개선 지도의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의생활지도는 같은 재료로써 좀 더 간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보급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각종 의류 만들기, 보관법, 기초바느질, 기초편물, 기초수예, 염색 등의 과제로부터 시작하여 1964년에는 작업복, 앞치마, 방한복, 평상복 등 기능복 만들기 지도, 1966년의 작업복 착용 중점지도 기간설정 지도와 직물표본 200편 제작·배부 지도, 1967년의 266만여 벌의 작업복 보급 등의 사업이 있었다.

주생활 지도로 1960년대 초기에는 농가주택 개량 사업의 하나로 흙벽돌 이용을 많이 권장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난방연료의 효율화를 위한 개량온돌과 부엌시설 개량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는 농촌연료원의 개발을 위하여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보급하여 1968년에 15개소, 1969년에 50개소(각도 시범부락에 20-40호씩 시범설치), 1970년에 796개소, 1971년에 3,000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

메탄가스의 사용은 농촌의 연료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산림녹화, 축산 장려, 채소의 청정재배에도 도움이 되었다.

보건위생 지도로 1960년대에는 기생충의 감염원이 되는 변소를 분뇨 분리식으로 개량하여 기생충 감염 경로를 막도록 지도하였으며, 이 밖에 오물처리, 모자보건, 우물소독 등을 지도하였다.

가정경영 지도로는 생활용품의 구매 방법, 현금, 노동, 시간의 합리적 관리와 가내시설의 개량, 절미저축, 식량 및 연료의 소비절약 등을 지도하였다.

#### ○ 농촌영양개선 사업실시

1968년 3월에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과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3년 6개월간 응용영양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영양가 높은 식품의 증산과 식품의 영양가 유실을 방지하는 과학적인 가공, 조리, 저장법의 지도 및 영양개선에 역점을 두어 전개되었다. 응용영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식품섭취 실태조사, 건강조사, 식습관 및 금기식품 조사 등이었다.

(2) 유희지를 이용하여 부족 영양식품, 즉 주곡 대체식품인 감자, 고구마, 단백질식품인 두유, 내륙양어, 양계, 갈습식품인 유산양, 비타민 식품인 해바라기씨, 들깨, 참깨 등을 생산토록 지도하였다.

(3) 시범마을 단위로 새마을회 관내에 “영양개선의 집”을 설치, 운영했으며 제분기, 브렌더 등 식품가공 기구와 50인용 급식기구를 비치하여 농번기 공동취사와 식품공동가공 및 탁아급식장으로 활용하였다.

(4)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생산된 영양식품의 일부를 단체급식함으로써 그들의 채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농촌 영·유아 영양개선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센터는 부락회관 “아기의 집” 또는 리·동 사무소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부모들의 협조 아래 단체급식을 실시하였다.

(5) 주곡절약과 균형식 요리법의 보급을 위하여 월별 주곡소비절약 실천 중점지도, 감자, 고구마의 주식화, 요리개발·보급, 병조림 보급, 토끼요리개발, 보급, 식품건조, 저장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6) 위생우물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 식품분석표의 7종의 교재제작과 지도요원 및 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 ○ 농번기탁아소 설치지도

노동력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촌에서 어린이를 돌보기 위한 탁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부모들의 농사일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육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농번기탁아소는 대체로 1960년경부터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4-H구락부 여성지도자나 4-H 여부원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여기저기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번기탁아 사업을 생활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전국에 139개의 탁아소가 설치되었고, 보모의 수는 약 145명 정도이었다. 이 당시에는 제대로 시설을 갖춘 탁아소가 별로 없었고 보모에 대한 교육훈련도 별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사업은 1965년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전년에 비해 탁아소 수와 보모 수를 3배 이상으로 늘려, 탁아소는 1,198개소 보모는 1,67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66년에는 일단 그 수가 줄었다가 1967년에 탁아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권장한 결과 무려 3,959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68년에는 다시 4,277개소로 늘어났으나 그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1973년 이후는 매년 5000개소~10,000개소의 농번기탁아소를 운영 지도하였고, '82년 유아교육의 일원화를 위한 통폐합으로 인하여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 ○ 농가부업지도

농가의 부업지도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이 부업전담 지도사를 배치하고 농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성에 알맞는 부업의 제품 및 생산기술 향

상에 노력해 왔다.

그 동안 지도한 주요 가정 부업으로는 수공예, 수편물, 훌치기, 죽세공, 자개박이, 조화, 인조진주, 중소가죽 기르기, 양잠, 양봉, 양돈 및 옥수수피 가공, 관초가공품, 수수비, 건조채소, 구판사업, 화훼, 느타리버섯, 가늌뿔, 보세가공 등 다양한 편이었다. 그러나 부업기술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단기 훈련으로는 숙련기술자 양성이 곤란하였고 판로 개척이 부진하였으며 공동사업이 어려운 점이었다.

#### ○ 생활개선 구락부 운영과 전시사업

5.16 혁명후 농촌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개선 구락부의 조직과 부원수가 크게 증가하여 1971년에는 18,609 개 구락부로 리, 동에 한개 구락부 꼴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지도인력으로서의 인원, 훈련, 장비 등이 뒤따르지 못하여 휴민 구락부가 속출하고 유능한 자원지도자의 확보가 어려웠다.

생활개선 과제의 지도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각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방법연시하는 전시농가를 설치하여 왔다.

이 사업은 전시 농가 자체의 생활개선은 물론 인근 농민들이 이를 수시 관찰함으로써 개선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채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961년부터 1966년까지의 주요 전시과제를 보면 작업복, 개량메주, 온돌개량, 부뚜막 개량, 조리대, 흙벽돌 이용, 찬장, 기생충 구제, 번소개량, 우물개량, 토끼 기르기 등이었다. 또 전시 농가에는 가계부를 기록하도록 하여 개선후의 가계비와 노동절약을 대조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과학적인 생활개선 과제를 연구, 개발하기 위한 생활개선 과제 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생활개선 구락부원의 과제활동 의욕과 인근 농민의 개선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생활개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이 있었다.

#### 다. 1971-1979년의 생활개선 사업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차츰 공업화 되는 과정이었으며 석유 파동으로 생활에도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1971년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생활개선 사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 33,267 개의 리·동을 대상으로 지방개량, 공동 우물설치, 공동빨래터 등의 환경개선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73년 전국 3,466 개 마을이 참여하여 지방개량, 표준주택건설, 노변주택 개량, 하수구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간이급수, 메탄가스 이용시설, 공동 목욕탕 설치 등의 과제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농촌의 주거환경과 의식구조등 농촌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1970년대의 “생활개선 지도”는 농촌영양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농민과 농촌아동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제 1단계(1968-1970) 171 개소, 제 2단계(1971-1973) 270 개소, 제 3단계(1974-1976) 380 개소의 영양개선 시범마을을 설치하였으며, 제 4단계인 1977년에 220 개소, 1978년에는 400 개소의 시범마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단체급식장과 공동취사장을 설치하였으며” 고구마와 감자요리를 개발, 보급하기도 했다. 1974년과 1975년에는 농촌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영양식품 생산과 감자와 고구마 요리법의 보급으로 미백편중의 식품섭취를 균형식으로 개선하여 농민에 대한 영양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응용영양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75년에는 병 25 만개를 공급하여 병조림을 권장, 지도하였고 토끼요리, 야생식물 요리법을 개발, 보급하였고, 식량의 소비절약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3대의 식생활교육차를 이용하여 주간에는 식품가공, 저장과 각종 요리법의 연시 교육, 방송 및 전시 지도를 하고 야간에는 영화 및 슬라이드 상영을 통하여 4만 3천여명의 농촌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77년에는 농민의 건강관리라는 문제가 생활개선 사업의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으며, 영양개선 시범마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농촌아동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아동영양개선

시범마을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7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아시아지역 식량영양정책연찬회가 개최되어 식량영양 정책의 수립과 영양교육 지도 방법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각국의 경험발표에 이어 여러가지 당면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었다.

의생활에 있어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화학섬유의 대량 보급과 기성복 제조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직물취급법, 그리고 농번기 작업의 능률화와 피복비 절감을 위한 개량 작업복을 중점적으로 보급시켰다. 작업복으로는 새마을 작업복과 농기계 작업복 등을 들 수 있다.

주생활에 있어서는 메탄가스 이용시설의 확대 설치와 함께 새로 건축되는 주택의 설비나 기구는 보건과 영농면을 고려해서 설치토록 지도했으며, 기존 가옥도 현대 생활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1978년 농촌진흥청에서는 농번기탁아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보모는 새마을 청소년 회원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원이 9%이었다. 보모수당을 지급하는 탁아소는 전체의 56%에 불과한데 그 지원을 보면 지방비가 6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간식지급 지원은 마을기금과 지방비가 80%로서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함께 탁아소에 놀이기구 보내기 운동도 전개하였다.

마을단위의 난립된 농민조직을 정비하고 새마을운동의 통일적 실천을 위하여 국무총리령 제 141호(1977년 7월 8일)로 생활개선 구락부, 부녀교실, 새마을부인회, 어머니회 등을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생활개선 지도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어 부녀회장과 새마을 청소년회 여자부 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9년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이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1) 영양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2) 가정 전문가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행

하는데 있었다. 이 연수원의 연구조사과는 영양연구, 조리법, 식품처리,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훈련과는 생활지도사와 부녀지도자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 3. '80년대 생활개선 사업

경제의 안정적 성장지속과 쌀자급 생산 달성으로 차츰 농가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있으나 청장년의 도시 유출로 인하여 농촌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농촌 여성은 의식주 생활의 단순노동 제공자로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으나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일이 차츰 증가하여 생활과 생산을 조화있게 경영해야 하는 주도적 위치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주부의 역할이 영농면과 생활면에서 다양화됨에 따라 생활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팽대하게 되었다.

영농면에서도 농가주부의 영농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50%나 되며 농가주부 농업노동 투하량도 '67년 28%에서 '88년 46.2%로 증가하여 농번기에는 가사노동보다 농업노동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가정 생활과 가계구조,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여건변화에 따른 지도과제가 요구된다.

#### 가. 생활개선 사업추진 체계

##### ○ 중앙단위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도국의 생활개선과에서 총괄한다. 과장을 비롯한 2명의 생활지도관과 의·식·주·가정관리, 노동위생, 훈련사업을 담당하는 6명의 생활지도사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생활개선 사업의 계획평가, 교재제작 지원과 생활기술 정보의 제공 등 지도 기반의 조성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은 각종 생활개선에 관한 연구조사와 지도사 및 부녀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개선 사업의 확대보급과 새로운 기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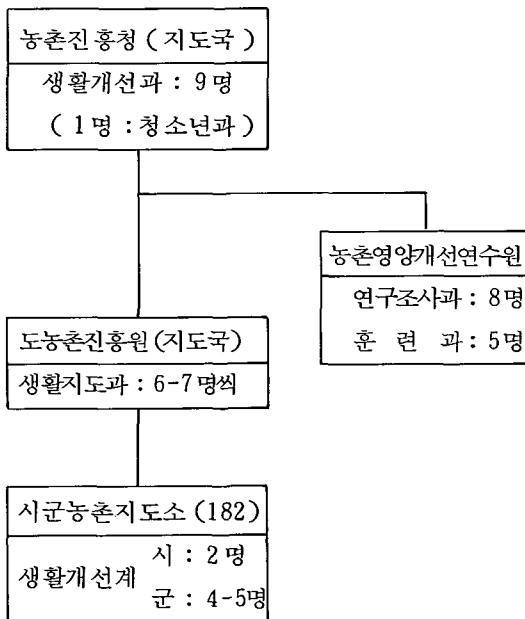
지원하고 있다.

○ 도단위

도단위의 생활개선 사업은 '89년까지는 도 농촌진흥원의 농촌사회과내 생활개선계로 1-2명이었으나, '90년도 기구의 개편으로 생활지도과로 승격하는 한편, 6-7명으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생활개선 사업을 특색있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시군단위

시군 농촌지도의 개발계내 1-2명이 생활개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89.4월 지소의 통합과 함께 시군 단위에도 생활개선계가 신설되어 4-5명으로 직접 농촌의 생활개선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나. 지도인력

구 분	총인원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구성비
전 체	7,979	7,227	752	9.4%
중 양	92	83	9	9.8
농촌영양개선연구원	13		13	100.0
도 원	290	234	56	19.3
지도소	7,584	6,910	674	8.9

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목표

'80년대 농촌부녀자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농촌생활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유능한 농가 주부의 육성”에 두었다.

세부 목표로서는,

- 농촌영양개선 및 식품조리 가공 저장법의 개발연구
- 농촌부녀자 및 지도요원 교육훈련
- 농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지도,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환경 조성과 생활정영지도 등이다.

라. 중점지도방향

- 여성의 농작업 참여 증대에 따른 작업 안전 및 건강관리 지도
- 영양식품 생산과 균형식 섭취지도를 통한 농민의 건강증진 도모
- 주택관리, 부엌 및 변소개량을 통한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생활 공간 조성
- 가계부 기록과 생애주기별 생활설계 실천 등을 통한 유용한 가정관리 기술 보급
- 화목한 가정과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한 지식 및 정보 제공
- 올바른 농업경영 의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부녀자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과정 마련
- 마을공동사업 참여의 적극 권장 및 생활개선부 등 부녀자 단체활동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 분야별 중점지도 과제

부 문	분 야	지 도 과 제
생활기술	의 생 활	○ 맵시있는 옷차림을 위한 기성복 선택 및 의복관리 세탁법 ○ 농작업별 작업장비 및 보조구
	식 생 활	○ 영양식품 생산 및 조리가공저장 ○ 균형식 지도 및 어린이, 노인, 임신·수유부 영양관리
	주 생 활	○ 주택관리 및 환경미화, 부엌설비 및 기구관리(작업조건외 능률화) ○ 환경오염방지 및 위생시설의 설치
	노 동 위 생	○ 농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작업환경개선 ○ 농업자의 안전대책 및 노동관리 피로방지법
생활경영	가 정 관 리	○ 생활설계수립(가정관리, 시간관리, 가사분담, 여가선용) ○ 가계부 기록, 금전 관리 및 재산증식, 소비생활교육
	가 족 관 계	○ 화목한 가정 이루기 및 자녀교육 ○ 집안전통, 가훈 익히기 <b>노인생활지도</b>
	농 업 경 영	○ 영농정착의지 함양 의식교육 및 영농의사 결정능력 배양 ○ 농업경영(기술습득, 기계화 영농기술)과 가정경영의 합리화
마을공동사업	생활환경개선 공 동 사 업	○ 마을청소, 꽃길조성 ○ 마을하수구 설치
	공 동 생 활 과 제	○ 생활개선부 활동의 활성화 ○ 유아원 설치

바. 지도방법

시군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 사업은 적은 인력으로 전 지역을 담당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읍면당 1개소씩 1,460개소의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로 매년 5호의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인근농가 또는 인근 마을에 파급되도록 하는 한편, 마을별로 생활개선부를 조직 운영하여 이들을 통한 공동사업의 실시, 과제의 이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을당 1명씩 전국 35,000명의 실천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당면한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하면 교재를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파급토록 지도하고 있다.

중앙, 도에서는 생활지도소의 훈련과 교재제작 지원으로 신속한 과제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사. 지도실적

○ 의생활 지도

의생활 과제로는 농작업복 착용, 농작업모 보급, 기성복 선택법, 헌옷 재세법 등을 중점 지도하였다.

특히 '84년부터 부녀자의 작업 능률을 올리고 피부관리를 위한 농작업모는 3,170천개나 보급하여 농가당 1-2개의 작업모를 확보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식생활과제는,

균형식 실천을 위한 가정원예포 설치, 식품가공저장, 간이두부 만들기, 이유보충식, 향토요리의 발굴 보급등 생활개선 시범마을 1,460개 마을을 중심으로 실습을 통한 지도를 하였으며, 전국에 12대의 식생활 교육차를 운영하여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활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주생활지도는,

'83년부터 농어촌지역 개발 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부업 개량을 시작하였다. '83년 농가호당 융자액이 9만원 정도로 타일을 이용한 작

업대를 설치하고 수도를 부엌안에 끌어 들이도록 지도하였으나, 그후 용자금이 호당 20-50만원으로 증가하여 작업대를 구입하고 완전 입식 부엌으로 개량하게 되었다.

'83년부터 '89년까지 총 126억원을 용자 지원하여 56천호의 농가부엌을 개량하였고 '90년부터는 4,000농가에 호당 100만원을 용자하여 부엌과 목욕실 등을 동시에 개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변소의 부분개량, 농기구 정리대 설치, 가정미화, 주택의 열관리 등을 지도하였다.

○ 가정관리 지도는,

'83년부터 매년 가계부 10,000부 정도를 제작 배부하여 가계부의 기록이 습관화 되도록 하고 가계의 진단을 통한 생활설계를 지도하였으며 가족의 가사분담, 생활예절, 자녀교육에 대한 지도에 힘썼다.

'90년부터는 부녀자의 소득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개소에 개소당 800만원씩 보조 지원하여 김치공장, 도토리묵 제조, 농산물 건조 가공, 참기름 제조 등의 소득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그 외에도 매년 20만명의 부녀자에게 소득활동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영농기술의 습득, 농기계의 조작 등을 익히게 하였으며, '83년부터 농민 후계자 부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10만명씩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 사업

##### 가. 농업과 농촌생활 여건의 변화와 전망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농업국에서 점차 선진국을 향해 공업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앞으로의 중요한 변화와 전망을 열거해 보면,

○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의 지속  
농가 인구는 1967년을 절정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1986년에는 30%이고 2001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예측된다고 한다.

또한 농업인구는 노령화 부녀화가 될 것이고 농촌의 도시화로 농업외의 인구가 흡수될 전망이다.

○ 가족노동력 중심의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노동력은 부족하고 계속 도시노임은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의 기계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고용 노동보다는 가족 중심의 노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영농 형태로서 발전

토지 가격과 노임보다 농지와 노동 생산성이 낮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가 시책으로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자본과 기술의 집약적 영농형태로 변화될 것이고, 식품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영농 구조가 달라지고 복합 영농으로 경영능력이 향상되어 “상업농”으로 전환될 것이다.

○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의 계속적인 진행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는 경제 성장의 가속화에 따라 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농의 경제 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농의 소득의 비중이 1984년에 35.0%에서 2001년에는 49.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농촌사회의 구조 변화

농촌의 영세농은 점차 감소하고 증산층화 될 것이고 농촌의 가족형태도 핵가족화하여 4.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혼주화(混住化)가 진행되어 교육 문화 수준이 향상되어 이에 따른 지출이 증가될 것이다.

부녀자의 교육수준은 현재 2/3정도가 국졸인데 비해 중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하나 남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 가정생활의 질적 변화

—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 (1) 가정생활에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 (2) 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와 소비욕구가 고도화 되고 다양화 될 것이며
- (3) 가정의 자립성 및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 (4) 가정 사이의 정보에 대한 격차가 커질 것이다.

○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농촌 여성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그 중



농업노동 참여율이 증대되는 한편, 소비생활의 관리, 자녀교육등 가정 경영에 대한 역할의 증대도 포함된다.

여성의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특히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율이 증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 나.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목표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목표를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과 농촌복지, 문화생활의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1980년대 생활개선 사업의 개념을 “농촌생활에 관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근대화를 뒷받침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토록 한다”는 생활개선 사업의 본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다만, 과학적인 생활기술 이외 가치관이나 의식에 대한 측면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 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방향

생활개선사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지도해 왔던 것 같다.

예를들면, 식량부족에 대처한 식생활개선, 연료 부족에 대처한 아궁이, 온돌개량 지도 등 기술적, 생존적인 문제를 중점 지도하였다. 또 우선 필요 불가결했던 것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1) 건전한 가족의 가치관, 윤리관의 정립
- (2) 창조적인 생활태도의 배양
- (3) 합리적인 가정경영
- (4)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5) 농업 경영과 가정 경영의 연계지도
- (6) 농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 (7) 농민의 건강 증진
- (8) 부녀자의 역할증대에 따른 능력 배양
- (9) 농촌생활개선사업 지도 기반의 확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 생활기술 이외 농업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것과 의식 측면까지 다루어져

야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 기반의 확충이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 라. 지도과제의 설정

생활개선지도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문제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구조, 생활양식, 농업노동, 가족제도 농가소득, 부녀자의 교육수준, 정부의 시책 등이 그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과제 설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

1989년 2000년대를 향한 농촌생활개선 사업 발전 연찬회시 토의된, 앞으로의 지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생활기술 분야)

##### ○ 의생활

농가의 생활내용에 맞는 각종 피복의 구입, 착용, 관리 지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의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기능별 농작업복 유형 개발 및 착용
- 기성복의 선택과 옷입는 요령
- 의복생활의 계획수립 실천 및 평가
- 피복관리

##### ○ 식생활

농민의 건강유지와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로 건강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함.

- 주거의 기능, 설계에 관한 기초 지식
- 부엌설비 및 기구관리
- 환경오염 방지 및 위생적인 시설
- 주택관리(수리, 방화 및 수해예방)
- 지역환경 조성(안전성, 보건성, 쾌적성, 편리성 등)

##### ○ 노동위생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 대책지도로 농민의 건강관리 지도

-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 농작업 및 농가생활의 안전지도
- 노동시간의 평준화
- 피로방지 지도

##### (생활경영 분야)

##### ○ 가정관리 및 가정경제

가정관리 능력과 관리기술 배양으로 현명한 가정운영 수행

- 농가 유형별 농가 생활설계 지도
- 여가선용
- 소비생활 지도
- 가족원의 역할분담 지도
-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

○ 가족관계

명랑한 가정분위기, 화목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가정생활 운영

- 건전한 가정 꾸미기
- 자녀교육,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 역할 지도
- 생활예절, 생활법률 지도

○ 농업경영과 가정경영 연계지도

농업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녀자의 역할 수행 능력 배양

- 영농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 과학영농 및 경영기술 습득
- 농업경영과 생활경영의 합리화 지도

(마을공동사업 분야)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주민 육성

- 공동사업실시 (마을청소, 하수구 정리)
- 공동 생활과제
- 지역전통 생활의 전승

## 5. 맺는 말

지도 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다만 학교 이외의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지도사는 피교육자의 행동에 변화가 오도록 하여 지역 또는 가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의·식·주 중심의 과제를 조직체를 통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우선 급한 과제부터 그 시대에 맞는 지도로 해왔다. 그러나 이제 전환기를 맞아 그 진로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며, 종전의 직접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농가에 파고 드는 지도 방법에서 앞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농가의 문제를 상담하는 역할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또 지도대상도 농촌여성 뿐만 아니라 청장년, 경영주 노인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생활과 생산의 불과분의 관계를 조화시켜 생각하는 농민으로 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